

9월 FOMC

인플레이션 파이터 모드로 급격한 전환

- 9월 FOMC 만장일치 25bp 인상, 경기 우려 완화·물가 경계 확대
- SEP 성장을 상향·실업률 하향, 물가 전망은 소폭 상향
- 점도표 연내 추가 인상 시사, 2027년까지 Higher for longer
- 워시, 강한 경기·더딘 물가 개선을 판단 변화 배경으로 제시
- 당사 연내 추가 1회 인상으로 전망 변경, 이후 매파적 동결 예상

9월 FOMC 회의, 25bp 인상 만장일치 결정, 경기 우려는 줄고 물가 경계는 확대됨에 따라 물가 안정에 무게

- FOMC는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기존 3.50~3.75%에서 3.75~4.00%로 25bp 인상했다. 7월 FOMC에서 인상을 주장했던 세 명의 위원뿐 아니라 동결을 선택했던 위원들까지 모두 인상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위원회 내부의 인플레이션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 경기 판단도 이전보다 강해졌다. 소비를 포함한 국내 수요가 견조하고 생산성과 자본투자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역시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봤다. 7월 성명문에서 강조했던 에너지 등 공급 측 충격에 대한 설명은 빠지고, 이번에는 2% 물가목표로 보다 신속하게 복귀(timelier return)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 Warsh 의장의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에너지나 관세로 오른 가격 자체를 금리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격 상승이 임금과 서비스 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인상은 경기 둔화를 감수한 긴축이라기보다,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만큼 물가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가깝다.

SEP는 '강한 성장 + 높은 금리'를 제시, 점도표는 올해 추가 인상 + Higher for longer 시사

- 9월 SEP에서 2026년 성장률 전망은 2.3%, 2027년은 2.4%로 각각 0.1%p 상향됐다. 실업률 전망은 두 해 모두 4.1%로 0.2%p씩 낮아졌다. 반면 2026년 PCE와 근원PCE 전망은 각각 3.7%, 3.4%로 소폭 높아졌다. 연준이 보는 미국 경제는 이전보다 명확해졌다. 성장과 고용은 예상보다 좋지만 물가는 아직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다. 위원들의 경기와 고용, 물가에 대한 리스크 평가도 달라졌다.
- 금리전망 변화는 더 컸다. 올해 말 점도표(중앙값 기준)를 보면 18명(케빈 워시 제외) 가운데 12명이 4.125%, 4명이 4.375%, 2명만 현재 수준인 3.875%를 예상했다. 즉 **16명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 이 중 4명은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 전망도 높은 수준이다. 8명이 4.375%, 6명이 4.125%를 제시했다. 전체 18명 가운데 14명이 내년 말에도 정책금리가 올해 한차례 더 추가 인상한 4.125% 이상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8년에 1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점도표만 놓고 보면 연준의 기본 경로는 대략 다음과 같다. **2026년 추가 인상 → 2027년 높은 금리 유지 → 2028년부터 완만한 인하 경로다.**
- 다만, 2027년과 2028년 점도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연준이 SEP에서

Economist 최제민 jmchoi@hmsec.com

RA 김백중 bjbj210@hmsec.com

제시한 단기금리 전망의 역사적 오차는 당해연도 약 $\pm 50\text{bp}$ 지만, 1년 뒤에는 $\pm 170\text{bp}$, 2년 뒤에는 $\pm 230\text{bp}$ 까지 커진다. 이를 현재 SEP에 단순 적용하면 2027년 4.1% 전망의 역사적 불확실성 범위는 대략 2.4~5.8%, 2028년 3.9%는 1.6~6.2%에 이른다. 따라서 올해 말 4.1%는 비교적 의미 있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지만, 2027년 4.1%와 2028년 3.9%는 성장과 실업률, 지정학적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점도표 상황과 더불어 장기 정책금리 전망도 3.1%에서 3.2%로 소폭 높아졌다. 변화 폭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예상하는 균형금리 수준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워시 기자회견: 7월 이후 판단이 달라진 3가지 이유 제시

- Warsh 의장은 7월 이후 판단이 달라진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예상보다 강했고, 인플레이션 추세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금융여건을 제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발언이 눈에 띈다.** 이번 인상을 긴축 영역으로 더 깊게 들어간 조치라기보다 **“완화의 일부를 제거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추가 인상 부담을 크게 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개별 CPI에 반응하기보다는 추세를 보겠다는 점도 반복해서 강조했다. 한두 차례 물가가 낮게 나온다고 곧바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서비스 물가와 임금, 기대인플레이션까지 포함한 흐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 및 전망: 연내 추가 1회 인상을 기본 전망으로 변경. 이후 매파적 동결 스탠스 이어갈

전망

- 9월 FOMC에서 주목할 부분은 25bp 인상 자체보다 **연준의 금리 경로가 전반적으로 위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경제 전망이 좋아지면서 추가 긴축에 따른 부담은 이전보다 줄었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는 그대로다. 실제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예상한 위원은 크게 줄었지만, 대부분의 위원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점도표 변화를 상당부분 설명한다. 더불어 장기금리 급등과 시장의 연준 신뢰도 시험도 9월 FOMC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매파적 면모를 더 강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소지가 있다.
- 9월 FOMC 이후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당사도 연내 추가 1회 인상을 기존 전망으로 변경한다. 내년 역시 높은 금리 유지 또는 추가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되는 모습이다. 시장은 9월 FOMC 직후부터 내년까지 추가 3회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다만 2027년 4.1%, 2028년 3.9%라는 숫자 자체에 아직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시계가 길어질수록 점도표의 예측오차가 빠르게 커지기 때문이고, 강한 경기, 오르지 않는 실업률만큼 미국 경제의 내실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취약 부문에 작용하는 압력은 높아질 것이고, 공급측 물가 충격이 수요측 물가압력으로의 전이되는 힘 역시 강하지 않다.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 고유가 지속과 공급차질 확대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예단도 어렵다.
- 이번 회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빠른 금리 정상화를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균형금리 수준도 조금씩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회의는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금리가 내려오더라도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을 보여준 회의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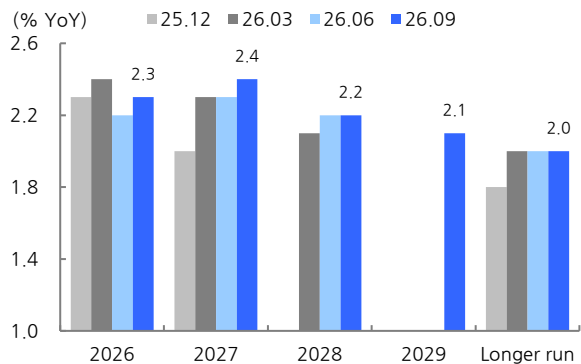
Key Chart

〈표 1〉 9월 FOMC 회의 경제전망요약(SEP)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Longer run
실질 경제성장률	2.3	2.4	2.2	2.1	2.0
6월 전망	2.2	2.3	2.2	-	2.0
실업률	4.1	4.1	4.1	4.1	4.2
6월 전망	4.3	4.3	4.2	-	4.2
PCE 인플레이션	3.7	2.3	2.1	2.0	2.0
6월 전망	3.6	2.3	2.0	-	2.0
근원 PCE 인플레이션	3.4	2.5	2.2	2.0	-
6월 전망	3.3	2.5	2.1	-	-
목표 연방기금금리	4.1	4.1	3.9	3.6	3.2
6월 전망	3.8	3.6	3.4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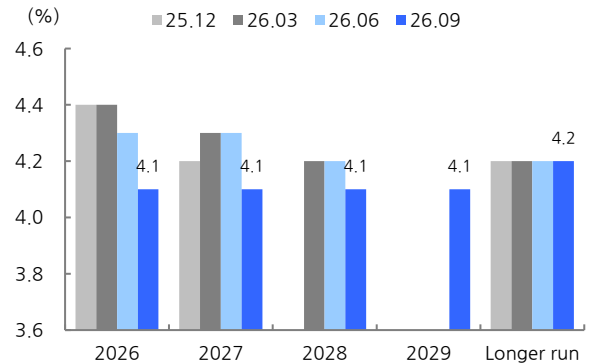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1〉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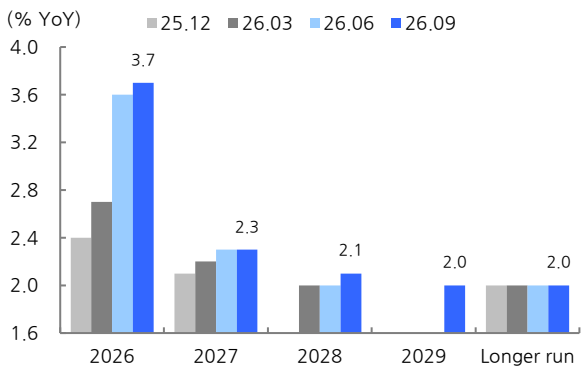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2〉 실업률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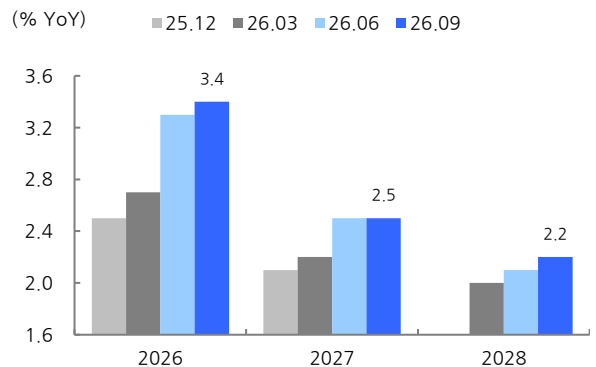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3〉 PCE 물가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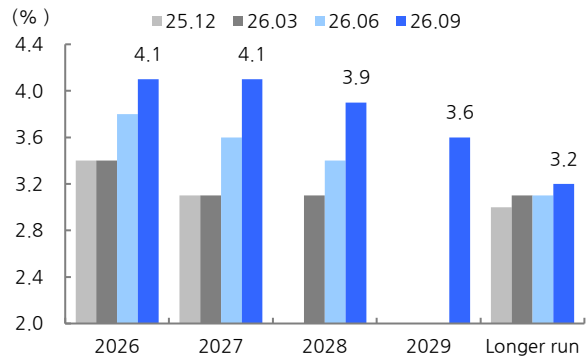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4〉 근원 PCE 물가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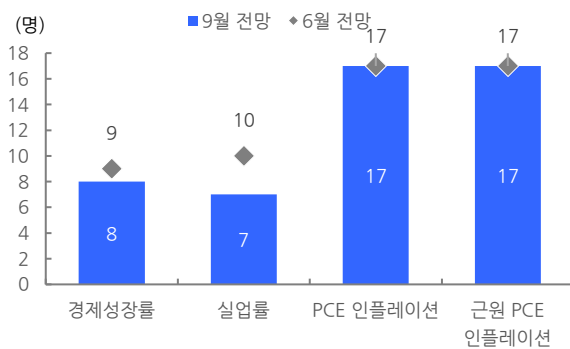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5〉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 중앙값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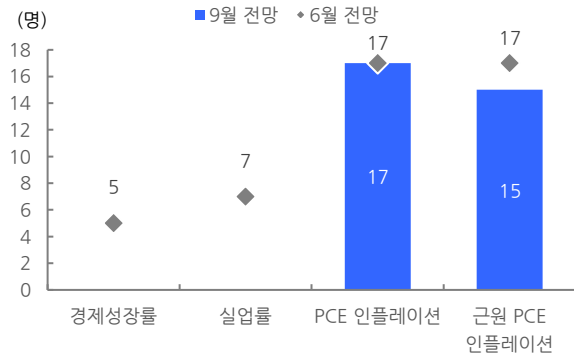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6〉 위원 중 불확실성 상승을 전망한 인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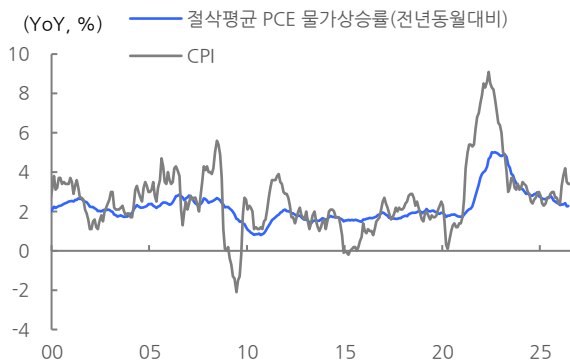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7〉 위원 중 리스크 악화를 전망한 인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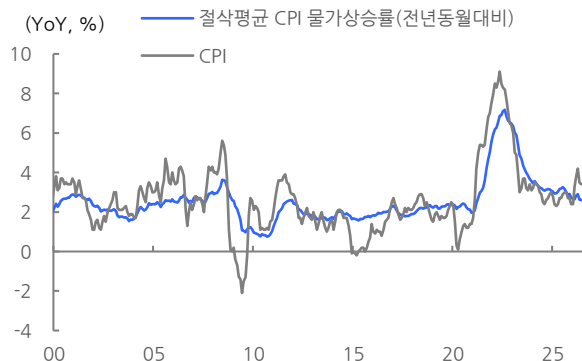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8〉 Trimmed Mean PCE와 C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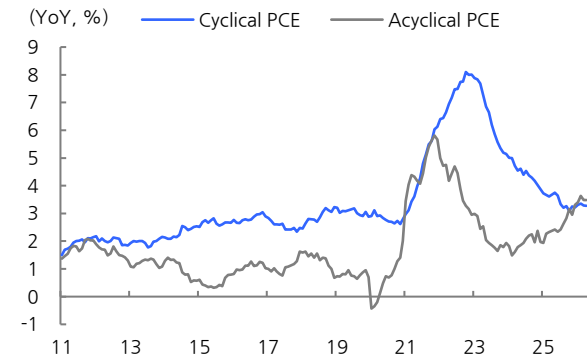
주: 절삭평균 PCE는 상위 31%, 하위 24% 제거
자료: FRED, 현대차증권

〈그림 9〉 Trimmed Mean CPI와 C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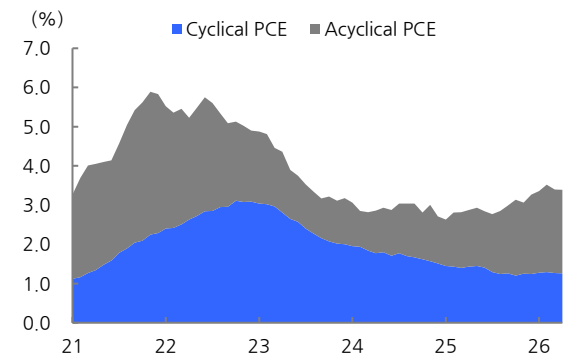
주: 절삭평균 CPI: 상위 8%, 하위 8% 제거
자료: FRED, 현대차증권

<그림 10> Cyclical PCE, Acyclical PCE %Yo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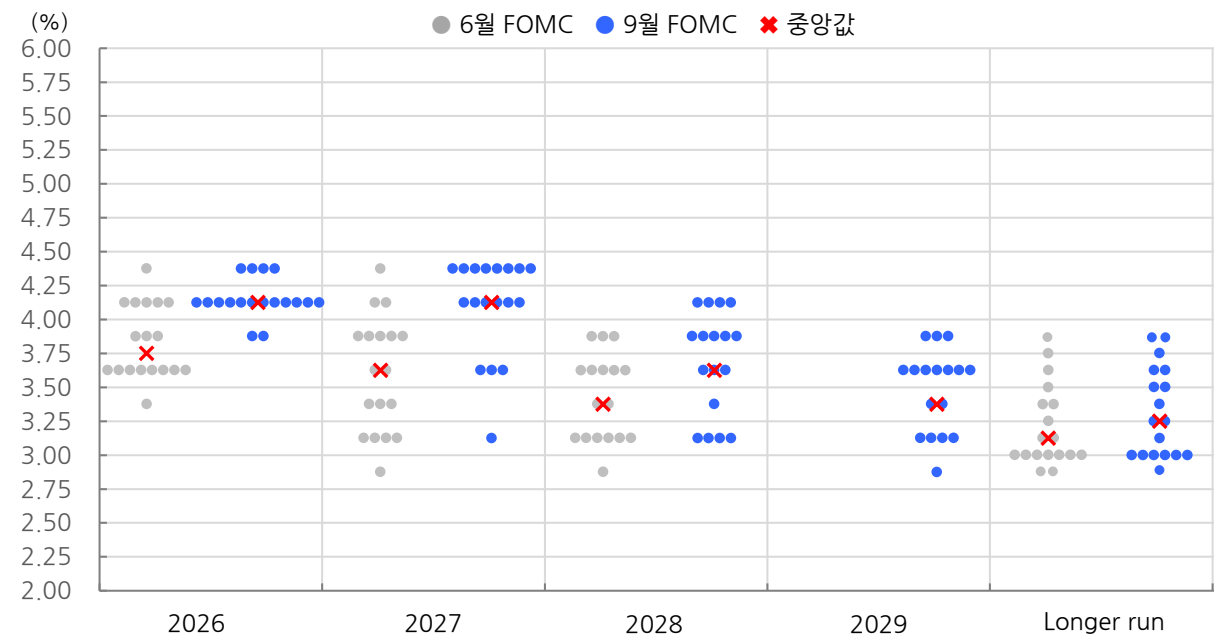
자료: FRED, 현대차증권

<그림 11> Cyclical PCE, Acyclical PCE 기여도 추이



자료: FRED, 현대차증권

<그림 12> 2026년 6월, 2026년 9월 FOMC 회의 연방기금금리 점도표 및 중앙값 변화



자료: Fed, 현대차증권

FOMC 성명문 변경사항

〈표 2〉 2026년 9월 FOMC 성명문

구 분	전문번역
7월 FOMC 성명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다음 성명서를 9대3 투표로 발표하기로 의결함: 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이중책무를 지원하기 위함임. 위원회는 은행 시스템 내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중동 분쟁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 생산성 증가와 자본 투자는 강세를 보이고 있음. 고용 증가는 노동력 증가 속도에 발맞춰 왔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음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2% 목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에너지를 포함한 특정 부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공급 충격을 반영함.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달성할 것임 베스 해맥(Beth M. Hammack), 닐 카시카리(Neel Kashkari), 로리 로건(Lorie K. Logan) 위원이 반대표를 행사하였으며,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25%p 인상하는 것을 선호하였음
9월 FOMC 성명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다음 성명서를 12대0 투표로 발표하기로 의결함: 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25%p 인상하여 3.75%~4.00%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이중책무를 지원하기 위함임. 위원회는 은행 시스템 내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경제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 지정학적 상황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내수 소비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생산성 증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투자는 견조한(robust)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고용 증가는 노동력 증가 속도에 발맞춰 왔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의 보다 신속한 복귀를 지지할 것임.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달성할 것임

주: ■ 7월 대비 표현이 달라진 부분, ■ 7월에는 없던 신규 추가 문단

자료: Fed, 현대차증권

〈표 3〉 7월 → 9월 성명문 주요 변화

1) 표결 결과: 9-3 → 12-0

7 월에는 3 명(해맥, 카시카리, 로건)이 0.25%p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했던 반면, 9 월에는 정책금리를 3.50~3.75%에서 3.75~4.00%로 0.25%p 인상하며 만장일치(12-0)로 회귀함. 7 월 반대표 위원들의 견해가 9 월 회의에서 다수 견해로 수용된 것으로 해석됨

2) "conflict in the Middle East" → "geopolitical developments"

불확실성의 원인을 7 월에는 중동 분쟁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했으나, 9 월에는 지정학적 상황(geopolitical developments)이라는 보다 포괄적 · 모호한 표현으로 완화됨

3) "domestic spending has been resilient" 신규 추가

7 월에는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를 한 문장에서 동일하게 strong 으로 표현했으나, 9 월에는 두 문장으로 분리하며 자본투자에는 robust(견실한)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함

4) 생산성 · 자본투자 문구 분리 및 단어 교체 ("strong" → "robust")

7 월에는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를 한 문장에서 동일하게 strong 으로 표현했으나, 9 월에는 두 문장으로 분리하며 자본투자에는 robust(견실한)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함.

5) 인플레이션 문단 대폭 축소 + 신규 문장 추가

7 월의 "위원회의 2% 목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에너지를 포함한 특정 부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공급 충격을 반영함"이라는 상세 설명이 9 월에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으로 대폭 축약되며 삭제됨. 대신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의 보다 신속한 복귀를 지지할 것임"이라는 문장이 새로 추가되어, 이번 금리인상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 명시적으로 연결짓는 표현으로 변경됨

자료: Fed, 현대차증권

연준 의장 기자회견 주요 내용

<표 4> 9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기자회견 주요 내용 요약

Q. 0.25%p 인상만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에너지 공급측 요인을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소폭 인상이 효과적인가?

A. 개별 가격(유가, 식료품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대가격 변화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2차·3차 파급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입장

Q. 금리인상이 보통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엔 다른 점이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공급충격에 기인한다면 금리인상의 효과는?

A. 포워드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 재확인. 오늘 결정은 취임 후 110~120일간 준비해온 신중한 판단이며, 점도표로 각 위원 전망은 알 수 있으나 향후 정책경로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 잭슨홀에서 약속한 '원칙에 기반한 판단'을 지속하겠다고 언급

Q. 시장이 오늘 인상 가능성을 90% 반영했는데, 이번이 시장 주도 인상이었나? 국제금리 상승도 그 요인 중 하나인가?

A. 금융시장과 연준 간 소통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나, 이번 결정은 고용·경기 여건에 대한 자체 판단에 근거했다는 입장. 시장가격은 참고 대상일 뿐 오늘 결정은 위원회 자체 판단이라고 강조

Q. 오늘 조치가 실제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메시지는?

A.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 저소득층이 물가안정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현재 경제 여건상 물가안정에 집중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 오늘 조치는 기존에 예고해온 물가안정 달성 의지와 일치한다고 언급

Q. 7월 회의(동결)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오늘 발표된 소매판매 지표가 수요 과열과 물가 상방압력을 시사하는지?

A. 개별 데이터 하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원칙 재확인. 7월 이후 7주간 확인된 세 가지 변화로 ①고용 등 광범위한 데이터로 확인된 경기 강세 ②당초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었던 인플레이션 추세 ③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 변화를 제시하며, 이 세 요인이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

Q. 오늘 조치를 '완화적 조치의 일부 회수'로 표현했는데, 현재 금리 수준을 제약적(restrictive)이라고 보는지?

A. 현재 금융여건을 제약적이라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위원들 다수도 같은 의견이라고 언급. 이번 조치는 금융·신용 여건을 목표에 더 부합하도록 완화 정도를 일부 되돌린 것이며, 향후에도 계속 평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

Q.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은 현재 금리를 '완만하게 제약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립금리 대비 현재 수준은 어떻게 보는지? 단기·장기 중립금리 목표가 있는지?

A. 중립금리는 학술적으로 유용한 개념(빅셀적 균형금리)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

Q. 데이터 의존을 지양한다면서도 이번 회의를 앞두고 8월 CPI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것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소통 방식에 변화를 줄 계획은?

A. 특정 데이터 하나에 몰입하는 관행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추세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 시장이 시간이 지나며 연준의 판단 기준을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

Q. '취약계층'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유가·식료품 가격 부담은 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A. 취약계층은 주식·401K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인구(전체의 약 50% 미만)로, 임금소득에 의존한다는 설명.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달성하면 실질임금 상승으로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인플레이션 관리가 연준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

Q. 올해 ECB 등 타 중앙은행들이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A. 타 중앙은행의 결정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는 원칙 재확인. 최근 여러 국가 중앙은행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각국도 물가 압력에 직면해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각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상호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

Q. 작년 가을 '경기가 너무 강해 금리인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단이 연준의 '6~7 번째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오늘 실제 인상을 단행하기까지 경제 판단이 어떻게 바뀌었나?

A. 취임 초기(110~120일 전)부터 경기 강세를 감지했으며 이후 데이터로 이런 판단이 확인됐다고 설명. 5년 반 넘게 지속된 물가안정 미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완화 정도를 일부 되돌리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언급

Q. 최근 장기 국제금리가 상당폭 상승했는데, 이것이 성장 전망·중립금리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며 통화정책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A. 장기금리 상승 배경으로 ①경기 강세 ②자본조달 경쟁(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자금조달 등 설비투자 급증) ③지정학적 리스크(에너지 등 현물가격과 정제마진 격차가 물가로 전이)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

Q. 잭슨홀에서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성명서는 '보다 신속한 목표 복귀'를 언급하면서도 SEP상 2% 달성 시점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 이 두 메시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나?

A. SEP 전망치는 본인이 아닌 위원 18명의 전망이라는 점을 전제. 6월엔 물가안정 달성 의지 재확인, 7월엔 시간을 두고 점검하겠다는 메시지, 8월 잭슨홀에서는 원칙에 기반한 판단 의지를 표명했으며, 오늘 조치는 이런 의지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단계라는 설명. 향후 정책 경로는 여전히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

Q. AI 업계 리더들의 '통제력 상실' 경고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는지?

A. AI가 경제의 수요·공급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연내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향후 정책적 함의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설명. 다만 AI 규제 관련 정책 판단은 정부의 다른 부처 소관이며, 연준은 그 여파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Q. 인플레이션이 주로 에너지·관세발 공급충격에서 비롯됐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된 한 금리인상 없이도 자연 해소될 수 있는데, 이번 인상으로 잠재성장을 이하로 성장을 눌러 고용시장에 의도치 않은 타격을 줄 필요가 있는지? AI발 성장 동력과는 어떻게 조화되는지?

A. 현재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책무가 중장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물가안정이 결국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으로 마무리

자료: Fed,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최제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